

2019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소설·동화 심사 완료

# “삶이 각박할수록 문학의 열기 뜨겁다” 1739편 참여 ... 어두운 현실 다룬 작품 많아



2019 광주일보 신춘문예 심사가 20일 오후 본사 9층 편집국 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서향숙 아동문학가, 손택수 시인, 강영숙 소설가.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당선작 2019년 1월 2일자 광주일보 지면 통해 발표

경제적 현실과 신춘문예는 상관관계를 이룬다는 말이 있다. 삶이 각박할수록 문학의 열기 또한 뜨겁다. 문학적 상상력으로 고달픈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문인들의 열망 때문이다.

2019 광주일보신춘문예 심사가 완료됐다.

올해 응모작은 시 1450편 소설 164편, 동화 125편 등 모두 1739편으로 예년 수준의 현황을 보였다.

올해 신춘문예는 계속되는 경제 악화와 청년 실업 등 어두운 사회적 분위기 탓에 응모자들이 현실의 피폐함과, 고단함을 담아낸 작품들이 많았다. 특히 소설에서는 독거노인이나 실종사건, 외국에서의 경험을 형상화한 작품이 많이 띄었다.

또한 병원, 경찰서, 목욕탕, 바다, 비행기 안 등 다양한 공간들이 작품의 배경으로 등장해 관심을 끌었다. 그 가운데 생명의 위중함을 다루는 응급실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 많았다. 문인들이 작금의 고통스러운 현실로 파생되는 삶의 부조리와 아픔에 촉수를 드리우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투고자들의 면면도 다양했다. 10대부터

8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응모를 했다. 지역도 광주 전남을 비롯 서울 및 수도권, 충청, 영남 지역 예비 문인들이 투고를 했으며 해외에서 응모를 한 작품도 있었다.

원고지에 포박포박 눌러쓴 손글씨 원고도 눈에 띄었다. 어떤 응모자는 군 복무중 휴가 기간을 이용해 직접 방문해 접수를 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마감 직전까지 편집국에 찾아와 응모를 한 예비 문인들도 많아 신춘문예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소설 부문에서는 자기 각박, 사체에 내몰리는 인물을 소재로 다룬 작품이 많았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극한상황에 처한 인물들의 현실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다.

강영숙 소설가는 “SF나 쿼터 장르와 같은 작품보다 파격한 노동현실을 다룬 소설이 많았다”며 “출구 없는 현실에 내몰리는 현실에 대한 강박적 경향을 투영한 작품이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 부문 또한 개인적인 체험과 슬픔 등이 녹아 있는 시가 많았다. 진정성이 있는 사유를 배면에 깔고 있는 작품은 많았지만 신춘문예 취지에 맞게 자신만의 독특한 언어

로 형상화한 개성적인 시는 많지 않았다. 손택수 시인은 “언어의 과잉이라는 최근 시단의 흐름과는 달리 특이하게 세계의 비참과 자아의 그늘을 용해시킨 시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면서도 “기시감이 있는 이미지나 잠언 투의 고무한 문법을 구사하고 있는 작품도 더러 눈에 띄었다”고 평했다.

진혜진 시인 또한 “현실적인 개인의 아픔과 청년 실업을 다룬 작품들이 많았다. 그러나 자신만의 독특성을 가졌으나 문학적 형상화가 미진한 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동화는 사실과 환상, 우의적 판타지를 다룬 작품들이 고루 분포했다. 작금의 동화를 쓰려는 문청과 예비문인이 많아지면서 비롯된 경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작품 수준은 예년 수준으로 ‘이 작품이다’ 할 만큼 개성적인 동화는 없었다.

서향숙 아동문학가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작품은 많았지만 문청의 기개가 넘치는 활달한 상상력과 문학성을 갖춘 작품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당선작은 2019년 1월 2일자 광주일보 지면을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2019년 1월 중순경에 열릴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무지크바움의 크리스마스 선물 ‘산타와 호두까기 인형’

24일 오후 7시 나주문예회관  
피아노 4대 앙상블 ... 캐롤 등 연주



피아니스트 이슬 피아니스트 윤우정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을 피아노 4대의 앙상블 연주로 만난다.

(사)문화공동체 무지크바움은 오는 24일 오후 7시 나주문예회관에서 송년 음악회 ‘산타와 호두까기 인형’을 연다.

나주시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영화 음악·캐롤·춤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무대에 올린다.

먼저 무지크바움(이화)유스오케스트라 앙상블이 영화 ‘여인의 향기’, 드라마 ‘하얀거탑’의 주제곡과 캐롤 메를리를 연주하며 무대의 문을 연다. 이어 김세현·윤우정·문희진으로 구성된 토이 피아노 앙상블 ‘슈’가 쿠리코더 파르팻의 ‘할아버지의 11개월’, 프로이 앤더슨의 ‘썸메타기·타자기’, 캐롤 ‘징글벨’로 성탄 분위기를 돋운다.

김정아·양수희·이슬·장지민·임인수·김혜진·김형미·김동영이 모인 티엔티 페스티벌 앙상블은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

형’ 모음곡을 4대의 피아노로 8명의 연주자가 들려주는 풍부한 선율을 선사한다. 전석 초대. 문의 061-339-462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임방울국악제 수상자들 ‘송년 국악 한마당’ 공연

26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임방울국악제 수상자들이 다채롭게 꾸민 국악 무대가 열린다.

(사)임방울국악진흥회가 오는 26일 오전 11시 광주시 남구 구동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공연장에서 ‘송년 국악 한마당’ 공연을 연다.

150명을 초대해 여는 이번 공연은 국악 앙상블과 판소리, 풍물판굿 등 다채롭게 꾸며진다.

먼저 김승호 등 4명으로 구성된 전통국악앙상블 놀음판은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퓨전판소리로 무대를 연다. 이어 임방울국악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찬미 명창이 ‘흥보가’ 중 화초장장 대목을 무대에 올린다. 노혜현 명창은 ‘심청가’ 중 심봉사 노는 대목, 정성희 명창은 ‘춘향가’ 중 어사 상봉 대목을 부르며 분위기를 돋



정성희 명창의 판소리 공연 모습.

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한 황소희 등 4명의 무용수가 화려한 부채춤을 추고 농악일반부 대상을 차지한 장호준 등 4명은 풍물판굿과 소고춤으로 신명나

는 무대를 연출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출연진이 무대에 올라 흥겨운 남도민요를 부르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무대를 펼친다. 문의 062-521-0731.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전통문화예술강좌 수강생 수료식 및 발표회

오늘 전통문화관 서석당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하반기 전통문화예술강좌 수강생 수료식 및 발표회가 21일 오후 3시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열린다. 광주시 무형문화재와 전문강사들로 진행된 하반기 전통문화예술강좌는 지난 9월 개강해 4개월간 전통문화관에서 진행됐으며, 이번 수료식은 그 동안의 성과와 쌓은 실력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수료식은 수료증 수여, 축하, 수강생 발표회 순으로 진행된다. 판소리·판소리고법·가야금병창·전통다례 강좌 등 8팀이 발표할 예정으로, 서석당에서는 전통음식 2강좌의 더덕짬야지, 매생이국, 양념꽃게장, 깨강정, 오색경단 등 9개 작품을 선보이며, 솟을대문과 서석당 주위에서는 탕화와 민화 작품 17점



지난 6월 열린 상반기 전통문화예술강좌 발표회 모습.

을 볼 수 있다. 한편 겨울특별강좌 중·장년 남성 대상 찬품만들기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수강생을 모집하며 2019년 상반기 전통문화예술강좌는 2월부터 수강생 모집을 시작해 3월 개강할 예정이다. 문의 062-232-150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